

전도서/아가

2019년 월 일 초판 발행

펴낸이 김광욱 김영준 이영란 정한조

펴낸곳 100주년기념교회

표지 이지영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길 46

전화 02~332~9177

팩스 02~332~9175

비매품

작성

전도서 1:1~18 | 정한조

전도서 2:1~26 | 정한조

전도서 3:1~22 | 백정수

전도서 4:1~16 | 정재규

전도서 5:1~20 | 정한조

전도서 6:1~12 | 정한조

전도서 7:1~29 | 정한조

전도서 8:1~17 | 김대인

전도서 9:1~18 | 박성호

전도서 10:1~20 | 임용완

전도서 11:1~8 | 이영란

전도서 11:9~12:14 | 정한조

1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전도서 1:1~18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5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쫓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8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10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11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12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5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16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다 17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해 아래 인생~헛되고 헛되니(1~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하였고, 장년기에 잠언서를, 그리고 젊은 시절 많은 여인들과 결혼하며 우상숭배를 하였던 죄를 회개하고서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하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처음부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우리 인생사용설명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허무함을 읊조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설의 진리를 담고 있는 전도서에는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든 전도자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전도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태어난 아주 총명한 자녀가 하나님 없이도 인생의 업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보란 듯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쓰는

참회록과 같습니다.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에 대해 증거 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 결과는 허무함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7~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증거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본문 1~11절은 전도서 전체의 서론입니다.

(1)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는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윗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성 있는 신정왕국의 통치자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인데, 그 중에 잠언과 아가서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솔로몬임을 밝히는 반면에 전도서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많은 이방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한 지난 삶에 대한 참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의 삶을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직역하면 이러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헛된 것들 중에 헛되구나, 모든 것이 헛되구나”입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는 ‘헛되다’의 최상급 표현입니다. ‘바보들 중에 바보’가 가장 바보인 것과 비슷합니다.

이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숨’을 뜻하는 말입니다. 만약 손등에다 ‘후~’하고 바람을 불면 뭔가 느낌이 잠깐 있었는데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헛됨’은 ‘짧음’과 ‘의미 없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의 ‘숨’은 언제나 ‘한숨’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살리면 네 번의 한숨을 쉬고, 마지막은 숨을 모아서 다시 크게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자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과 인간의 숨의 차이입니다. 또 3절이 이렇게 증거 합니다.

(3)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하나님 없이 하는 수고는 사람에게서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의 시가 딱 2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7편입니다.

(시 127:1~2)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도다

파수꾼이 성을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자신의 지킴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것처럼 우리 모두는 참 열심히 삽니다. 아침 이른 시각부터 늦은 시각 까지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인생을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 인생은 헛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겸허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또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저절로 고백하게 됩니다.

(5~8)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뒀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연 현상, 그 중에서도 태양과 바람과 강물의 헛됨을 말합니다. 태양이 새벽에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 떠오르는 모습이 굉장히 웅장한 것 같아도, 이내 저녁이 되면 반대편으로 사라지

고, 다음날 아침 또 웅장한 것 같아도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지고 하여, 매일 똑 같은 일이 반복이니 그것이 헛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 바람이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고, 특히 세찬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을 다 날릴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하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오늘 불었던 바람이 내일도 불 것 이기에 헛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있는 많은 강들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보지만, 정작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엄청나게 넓은 바다 앞에서 강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강 물에 입장에서 보면 헛된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무엇을 보아도, 무엇을 들어도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가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남는 것은 피곤함 밖에 없어 헛되다는 것입니다.

(9~10)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역사는 반복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반복됩니다. 인간의 출생과 성장, 성숙, 노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동일한 길을 갔

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의 사람도, 1000년 후의 사람도, 10000년 후의 사람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동일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허무한 인간의 지혜(12~18절)

12~18절은 허무한 인간의 지혜에 대한 전도자의 설교입니다.

(13~14)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수효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들의 재판을 정성을 다해서 감당해야 했기에,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을 열왕기상 3:12이 이렇게 증거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고 말씀하시며, 솔로몬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 지혜가 그를 지켜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의 백합화 보다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미천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한들, 그 지혜가 자신을 지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6~18)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라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과 지혜대결을 벌여 진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 지혜로 똑똑한 것과 어리석은 것, 지혜로운 것과 얼빠진 것을 구별해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잡을 수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그 지혜는 기쁨과 감사보다, 번뇌와 걱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지혜를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인생은 헛되게 여겨집

니다.

오늘부터 살피는 전도서가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치는 것은 이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을 때가 솔로몬 때였습니다. 주변 국가에서 조공을 바치고, 경제 사정이 얼마나 좋았으면 사람들이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그렇게 목말라하는 시대입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직장인들이 모두 가족들이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봉급을 받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만든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절을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며 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왕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최고의 부자가 “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이나 그 돈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합니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그 다음날 바로 신문기사화 되고,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부자인줄로만 알았더니 겸손하기까지 하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만약 제가 “돈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가진 돈의 무게만큼이나 그 돈으로부터 짓눌림을 당합니다”라고 동일하게 말을 하고, 제 옆에 신문기자가 있었다해도 신문에 나는 일을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네가 많은 돈을 가져보기는 했어? 돈이 없

으면 말을 하지도 말어”라고 면박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말을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호소하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이자,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에 더욱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전도서가 우리 가슴을 치는 것은 우리 역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어서 떠나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적이 없는 것은 물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다면, 또 세상의 것에는 전혀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성경에서 전도서를 빼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전도서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것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헛되고, 한숨이 깊이 쉬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입는 것만큼 더 나은 삶이 없다는 것을 중심으로 수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전도서는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다”로 시작될 것이며, 우리의 매일 매일은 대림절을 넘어 성탄의 빛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큰 역량을 갖고 있을 지라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입에 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는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의 한 맺힌 호소를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올해도, 내년에도, 우리의 남은 생애동안도 세속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감으로 “의미 있고, 의미 있으며,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 모든 것이 의미 있도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생명의 숨이신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전도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전도자와 비슷한 경험을 한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솔로몬왕처럼 하나님을 힘입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의뢰했다가 교정 받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삶이 바르게 회복 되었습니까?
3. 지혜가 많아서 오히려 번뇌를 경험했거나, 많은 지식이 있어서 오히려 근심한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 더 하나님을 힘입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2

내가 나를 위하여

전도서 2:1~26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슬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5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7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8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9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

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명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14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15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 것임이라 오히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7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18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19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라미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20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21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22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23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4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26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즐거움도 헛되다(1~11절)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내용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1~11절은 해 아래의 인생이 꿈꾸는 쾌락의 욕망과 성공이 허무임을 역설합니다.

(1)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자가 ‘내 마음에 이르기’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내 마음에 결정을 했기에 지금 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말처럼, 전도자가 오래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 ‘시험삼아 마음껏 즐겨보자’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헛됨(한숨)이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이 없이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 쾌락에 자신을 방치해 봅니다. 거기에 혹 삶의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낙이 있는 가 확인해 보지만, 그러한 삶

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삶의 해갈함은 없고, 갈증이 더 커질 뿐입니다.

(2)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는 사람이 쾌락을 즐기며 아주 잠시는 박장대소하며
웃을지 몰라도, 그 웃음이 광인(狂人)이 웃는 것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1절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라고 한다면, 2절은 '웃
어도 웃는 게 아니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솔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전도자는 지혜를 향하는 삶을 원하면서도, 솔로 육신을 즐
겁게 하고, 쾌락을 즐겨보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굉장
히 어리석은 삶임에도 보람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머리는 이성을 따라서 살고, 몸은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지
혜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참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한숨을 쉬
는 것입니다.

정신과 몸이 따로 아닌데, 사람들은 '따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몸이 실제로 아픕니다. 또한

몸이 아프면 정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곤 합니다. 몸과 정신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땅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의미의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만들면, ‘신정불이(身精不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8)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것은 전도자의 고백이자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고,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들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사업을 크게 해 보고, 자신이 하는 농사도 크게 확장해 보고,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남녀 노비를 사서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여 더 많은 종들을 거느려 보기도 하고, 소와 양 떼를 이전보다 더 많이 목축을 해 보기도 하고, 보석구입과 명품구입에 빠져보기도 하고, 심지어 더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웠어도 아내들의 얼굴과 이름, 출신지 등을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한 순서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결혼한 순서를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의 첩을 어디에서 처음 만났는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인생을 쾌락과 세속적 가치관으로 대변되는 술에 빠져 살아보기도 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데까지 확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11)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는 그 모든 활동의 결론을 ‘헛되다’와 ‘무익하다’로 표현합니다. 인생에는 ‘헛되다’라고 표현할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헛되다’는 것을 실패자가 느끼게 되면, 그것은 성공을 향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공자의 헛됨은 실패자의 헛됨보다 더 깊이 느끼게 만들어 타락함, 방탕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도의 미도 있을 수 없음을 전도자는 깊이 경험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12~17절)

12~17절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우매한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교훈하며 한숨을 쉽니다.

(12)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 전의 일일 뿐이리라

전도자는 임금의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선왕이 이미 행했던 일을 확인해 보았는데, 지혜, 망령됨(미침), 어리석음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지혜롭게 행한 것으로 보이는 일이 아주, 아주 약간 있을 것이고,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 정신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제 정신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리석고도 미련하게 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휘자이신 하나님의 지휘에 따르는 것이 지혜이고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슬기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나음을 알고 있고,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 있는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어리석은 사람이 겪는다든지, 어리석은 사람이 겪지 않는 일을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도 없이, 인생에서 겪어야 할 것은 함께 겪는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모두 태어나서 성장하

는 것과 몸에 병이 드는 것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초반에는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이 앞서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뒤서서 가는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에는 누가 앞서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겸허해야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입니다.

(15~16)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렐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자는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내가 무엇이 더 지혜롭다고 하겠는가? 이것 또한 헛되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비슷함’이 많지만, 생명이 떠나는 것, 죽음은 ‘다름’이 많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생명과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땅에서의 함께함에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생명의 탄생도 참 귀하지만, 죽음은 깊은 깨달음을 주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서도 초상집(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칫집(돌잔치)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수고도 헛되다(18~26절)

18~26절은 사람의 수고가 헛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21)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마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 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라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전도자는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을 누가 물려받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물려주는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빛나기도 하고, 안개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물려주는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다해서 수고하였지만, 그것을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소위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 솔로몬(전도자)은 소위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며, 정직하게 산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다면, 솔로몬은 솔로몬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애를 쓴 것을 전혀 애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물려 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법칙입니다.

(22~23)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낮에도 수고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헛됨(한숨)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고대사회에서 밤은 모든 과업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육체노동자가 밤이 되어서 육체의 노동은 내려놓았지만, 마음의 노동, 정신의 노동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함을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음에 짜증이 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자신이 있는 데로 보내어서 자신을 도와주게 명령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때, 마르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의 문제는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음이나 자신의 일이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분주함’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해야 할 일의 과다

(過多)가 아니라, 쉬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혹, 늘 마음이 분주하여,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24~26)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것,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한 것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서 하는 수고는 다 헛됨(한숨)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의 성패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자기를 힘입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남겨지는 것은 헛됨(한숨)밖에 없음을 전도자는 아주 또렷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상반부인 1~11절에서 전도자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삼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를 위하여’ 등 ‘나’를 반복해서 말하며 자기를 힘입어서 무엇을 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 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색종이가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숨(한숨, 헛됨)’으로 붙여질지, ‘하나님의 숨(생명)’으로 붙여질지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힘입느냐, 하나님을 힘입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위하여 집들도 짓고, 포도원과 과수원도 가꾸고, 나무도 심어보았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노비들도 사고, 목장을 소유하기도 하고, 은과 금을 소유하기도 하고, 많은 아내와 이성(異性)을 두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래서의 삶이 전부이고, 하늘 위의 삶이 없다면, 인생은 참 허무하고, 살아갈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늘 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힘입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 세상을 힘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앙생활 중에 '나를 위하여' 행했던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무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2. 많이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과,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길에서 겪는 일들은 다르지 않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언제 경험하신 일입니까?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고 생각되신 적이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으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3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전도서 3:1~22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7 찢을 때가 있고 꿰매는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9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10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

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16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17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18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 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세상 모든 것에 있는 때와 기한(1~8절)

바둑기사들은 대국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복기를 합니다. 복기는 방금 두었던 판을 한 수씩 주고받으며, 그 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한 수씩 두면서 어떤 시점에서 승부가 갈렸는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복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반인이 프로기사에게 어떻게 복기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프로기사가 답했습니다. 프로기사들은 한 수, 한

수가 모두 의미를 두고 두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했습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생각난다고 합니다. 프로기사 조훈현 9단의 회고록에 의하면, 복기는 승자와 패자 모두에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패자는 경기에 지고 나서 비참하고 우울한데, 한 수, 한 수 복기하면서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니 심적 부담이 무척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견디고 복기를 하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기를 하면 자신이 잘해서 이겼다는 것을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어지고, 또 자신의 실수로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겸손과 절제를 배우며 다음 대국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복기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복기가 무엇입니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때는 히브리어‘에뜨’라고 하는데, 어원은‘아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는‘증거하다, 반응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증거하고 반응하시는 방법’은 바로‘때 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 인간을 담으셨습니다. 따

라서 시간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전도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합니다. 기한은 히브리어‘제만’이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Season(계절)이라고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긴 한 줄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는‘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처럼 각 기한들이 있다고 합니다.

(2~8)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때와 기한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 2절부터 8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인생은 예측한 데로 흘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도 학교도 회사도 교회도 여러 기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의 때를 누리는 때가 있으며, 반면에 좌절을 경험하는 폭풍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각각 반대되는 인생 속의 14쌍의 사례들을 대조하여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안에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

니다. 각양각색의 기한들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혹 내가 광야의 기한을 지나고 있다면, 왜 이런 광야 속에 있는지, 이 광야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기쁨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왜 이런 기쁨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영적인 복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을 때 겸손하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한이든 끝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기를 통해 그 다음에 찾아 올 기한들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법(9~11절)

(9~10)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전도자는 삶 속에서, 밤이 새도록, 건강을 해쳐가면서 수고했던 삶의 이익은 무엇이냐고 질문합니다. 가정, 학업, 직장, 물질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지만,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아버지 재산으로 돈을 소비하고 즐기면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로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함과 비참합니다. 탕자가 돼지의 먹이인 쥐엄열매를 먹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쥐엄열매 조차 먹을 수 없었을 때, 누가복음 15:17에 그는“이에 스스로 돌이켜”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쥐엄열매를 못 먹게 된 기한이 결국 은혜로 된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풍요의 기한이 지나고, 방탕함의 기한이 지나고, 비참함의 기한이 지나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한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의 주권에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기한이 있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다음 기한으로 가는 은혜의 쥐엄열매 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삶에서 어려움의 기한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기한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는 기한입니다. 혹시 기쁨의 기한을 지내고 있습니까?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유한한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시간이 소망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영원의 시간에 눈을 뜨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관점,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아름답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의 히브리어 ‘아페’는, ‘적절하다, 적합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적절하고 적합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사랑과 상황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람들로 인해 불만을 갖고,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인인가?” 또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이 나에게 발생했는가?” 이해가 안 되고, 분노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문제의 사람들과 상황을, 적절하게, 또 적합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힘들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들은 적절하게 만드셨습니까?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21~22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에 벽돌, 철근 등 수많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문제가 있고 보잘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또 불합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의 벽돌과 자재들이 되어, 굳건한 건물을 완성되게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도 결국은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

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세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모든 것이 적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15)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깨달은 삶의 유익(12~15절)

따라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더 나은 것, 즉 최선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진정한 최선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라스모 아흐’는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중 비슷한 말로 ‘찰레아흐’가 있습니다. 이는 ‘형통하다’ 즉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형통한 것이 성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되어야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통하다’란 단어가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곳은, 창세기 39:2, 23에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형통은

위치의 문제가 아닌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비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이를 믿는 것이 바로 형통이고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절대 형통하였다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평온하거나 혹은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형통한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몸에 습득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의 시선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게 됩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살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층간소음도, 음주운전 등도 결국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었기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제 코가 석자인 상황입니다. 누구를 돌아보고 챙겨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다른 죄수들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내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죄수들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을 걱정하였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민을 들어줄 때, 요셉은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섭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적 본능(16~21)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 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흠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흠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삶의 본분(16~22절)

전도자는 모든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며, 결국 이 세상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결코 묵인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정하신 때에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세상의 정의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친다하더라도 그것에 낙심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도자가 짐승을 거론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 사냥하고, 본능에 따라 자기 영역을 지키며, 본능에 따라 싸우고, 본능에 따라 종족을 번성시킵니다. 만약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논 본능이 아닌 영적인 본능을 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들을 귀하게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22)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라

자기 일이란 우리의 본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가치의 힘을 잡으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힘 입고 살아가는 자세가 진정한 우리의 본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라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있을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기에,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큰

복락을 누리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좇고 그 힘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 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삶 속에서 하나님만을 힘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복기를 통해 다음에 다가올 기한들을 준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상을 돕는 질문

1. 내 삶의 지나 왔던 수많은 여러 기한들을, 하나씩 꺼내어 영적인 복기를 해봅시다.
2.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 봐야 할 문제와 사람은 누구인가요?
3. 나는 최근 어떤 선행을 했는지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할 선행을 다짐해봅시다.
4.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본능은 무엇이며, 이를 버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묵상한 날 :

해 위와 해 아래

전도서 4:1~16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2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3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 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4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5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6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 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7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9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겉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13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높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14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15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
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
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위로자가 없도다 (1~3절)

전도자는 해 아래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허무함을 보았고
한탄하듯이 토로합니다. 그 허무함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1~3절입니다.

(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권력을 가진 자의 학대로 인해 뼈아픈 눈물을 흘린 자들이
많지만, 그들을 위로할 위로 자가 없다고 합니다. 권력을 지닌
자가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남용하여 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부

당한 대우와 손해를 입히는 등 횡포를 일삼고 그 횡포에 힘없고 약한 자들은 고통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지만, 학대받은 자들을 위로하다가 자신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인지, 선뜻 누구도 학대받은 자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을 보며 허무를 떠올립니다.

얼마나 큰 허무를 느꼈던지 산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차라리 더 복되다고 말하며, 그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세상의 악함을 보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허무함을 탄식으로 내뿜으며, '위로자가 없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위로자가 없다'는 전도자의 이 두 번의 탄식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을 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에서 외로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위로자를 찾는 우리에게 '내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겠다. 나의 손을 붙들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외침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이 난무한 세상이 너무 힘에 겨워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의 위로를 전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권면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해 아래 세상에는 그 어떤 위로자도 없다'라는 허무함에 대한 전도자의 표현은 결국 해 위로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과 또 그 주님과

한 호흡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자의 자리에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성공의 허무 (4~6절)

두 번째 허무함은 수고와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4~6)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4절에 ‘재주’는 성공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온갖 수고 끝에 성공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그 성공이 시기의 대상이 되어 지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조차도 허무한 것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렇다고 팔짱을 낀 채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자는 이 또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자기의 몸만 축내는 것이라 하며 이를 어리석은 모습이라 언급합니다. 전도자의 해결책은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으로 평안이 없는 헛된 수고를 하기보다 차라리 한 손에 가득한 상태 즉 필요한 정도만 가지고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함께 할 대상이 없다 (7~12절)

전도자가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허무함은 함께 할 대상이 없다는 것에 대한 허무입니다.

(8)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일만하여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에는 그 소유를 물려 줄 자식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즐기지도 못하고 살았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거지?” 전도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헛되고 부질없음을 떠올렸습니다. 상속해 줄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면서 돈을 버는 것에만 집착하고 아무 좋은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며 허무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보다 사람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9~12)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홀로가 아닌 둘이 함께라면 한 사람이 넘어질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 줄 수 있고, 여행 중에 추위로부터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또 강도로부터의 위험에서도 서로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세 겹줄은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 겹줄은 믿는 우리가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한 가족의 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줄 또한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줄이기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그냥 단순히 단단한 줄 정도가 아닙니다. 이 줄은 서로의 호흡을 느끼게 합니다. 필요한 생기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음성을 전하게도 하고, 듣게도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또 기쁨을 느끼게도 합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줄을 늘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 영광, 권력의 허무 (13~16절)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도 영광도 권력도 결국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 허무를 얘기합니다.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아마도 범죄가 아닌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거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였지만 이 젊은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며 또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독선적인 왕보다 낫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지혜 있는 젊은이는 많은 백성들의 인기를 차지하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자 인기가 시들해져버렸습니다.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하며, 지혜도 영광도 권력도 결국 덧없고 허무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해 위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해 아래는 결국 무의미한 허무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와 긴밀히 연결을 맺고 계신 해 위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그리신 퍼즐을 맞춰가는 한 조각임을 알고 참 의미로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한날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와 끊어지지 않는 생명줄로 엮어주시고, 늘 시들지 않도록 생기를 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줄을 늘 기억하여 허무로 종결될 어질 세상에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만 부여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소리에 늘 민감하게 하셔서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생기와 위로를 전하는 전달자로 늘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전도자이 말하는 허무함은 어떤 것들입니까?
2. '위로자가 없다'는 전도자의 두 번의 언급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3. 우리는 주님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세 겹 줄로 연결되어 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연결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4. 당신은 지금 삶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것이 해 위에 계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묵상한 날 :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도서 5:1~20

1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 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4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6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8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9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
 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
 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라 17 일평생을 어
 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사
 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
 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
 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
 하심이니라

허무극복-하나님을 경외하라(1~7절)

12장으로 구성된 전도서를 크게 2부분으로 나누면 1~6장과
 7~12장으로 나뉘집니다. 전반부인 1~6장은 해 아래에서의 삶
 에 대해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허무함만 남음
 을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7~12장은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 삶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동의어임
 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임

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좀 더 세분하면, 서론과 결론 사이에 4편의 설교(강화)가 있습니다. 1:12~3장이 첫 번째 설교(강화)이고, 4~5장이 두 번째 설교(강화)입니다. 지난 본문인 4장에서 우리를 더욱 허무함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 권세와 성공, 함께하는 사람이 없음, 인기 등이었음을 살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권세, 성공, 인기 등은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얻어도 허무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2)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제사(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고 악행을 일삼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되는 분이시면, 하나님과 우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삶이 결여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제사)부터 그러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무엇이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제사의 종류가 무엇이었던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삶이 함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제사(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4~6)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나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 있다면 미

적거리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또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수로 서원을 했다고 핑계대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서원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을 하시면(해주시면), ~하겠습니다.”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서원했고,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서원했고,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주 엄하게 서원(맹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하나님과 거래’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서원은 ‘약속과 드림’입니다. 즉 하나님과 말로 한 약속을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서원과 관련하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서원(맹세)을 하지 않고, 자신을 드리는 것이 최상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드림의 과정이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가 서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서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둘째, 서원(맹세)을 하고 지키는 것이 차상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싶은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서원과 순종에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과도하게 서원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서원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서원(맹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하라고 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넷째, 서원(맹세)을 하고서,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것, 즉 지키지 않는 것이 최악입니다. 잘못된 서원, 바르지 못한 서원, 이기적인 서원, 하나님과 거래를 맺으려는 서원 등은 우리를 허무함 속으로 몰고 갑니다.

(3)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7)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를 허무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은 근심걱정이나 꿈(허망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허무만연-불의와 재물(8~17절)

8~17절은 해 아래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는 2가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8~9)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전도자는 가난한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
밟히는 것을 보는 것이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느끼게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
우를 받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의 기본적인 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미쉬파트(정의)는 ‘교정정의’와 같습니다. 교정정의는 잘못
을 행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 사람은
돌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의(미쉬파트)는
주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전무죄나 무전유죄에 따른 판
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정의입니다.

반면 체데크(공의)는 ‘기초정의’입니다. 올바른 성품에서 나
오는 올바른 삶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돕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공의(기본정의)가 가득하면, 정의
(교정정의)는 무의하게 됩니다. 법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
람, 언제나 지키려는 사람,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
합니다. 그것이 왜곡되면 사람들은 인생에 허무를 느끼게 됩니
다.

(10~12)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물의 허망함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은(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으로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실제 자기 소유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동적인 희망사항은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가지면 만족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동자는 단잠을 자지만, 부자(고용주)는 토끼잠을 잔다고 합니다. 아마 노동자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날은 월급날일 것입니다. 반면에 고용주에게는 가장 빨리 다가오는 날이 월급날일 것입니다. 아마 눈만 뜨면 월급날인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의 크기는 재물의 과다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13~17)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재물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함
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모은 재물이 자신에게 해
를 끼치는 일을 폐단(비참한 일, 통탄할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힘이 크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 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
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자녀에게 재
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 것도 물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사람이 태어날 때는 손을 쥐고 태어
나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펴고 떠납니다. 빈손으로 왔다
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깊이 새기는 깊이만큼
인생의 지혜도 깊어집니다.

허무극복-하나님의 은혜(18~20절)

18~20절은 해 아래서의 삶이 허무하기 짝이 없지만, 그것을 어
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표준새번역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8.표준)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해 아래서의 허무한 삶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로 표현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심을 믿고, 나를 심어주신 분을 향해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뿌리가 뽑힌 인생이 됩니다.

(19~20)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와 재산을 주셨는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

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짧고 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생명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만큼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목적삼고 사는 것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이 곧 해 아래서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위를 향하여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 매일이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서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순간이라도 내게 더 많은 은과, 더 많은 소득을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곳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중심으로 받아드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살아갈지라도 해 위를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발(행동)을 삼가고, 말씀을 들은(순종한) 일로 인해서 예배가 깊은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2. 많은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그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선물로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신의 몫으로 알아 해 아래에 살면서도 해 위를 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할 날 :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전도서 6:1~12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니 4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5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6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 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7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8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9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10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11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12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오

좋은 외적 조건에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절기행사 때에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펼쳐서 읽습니다. 그 중에서 ‘메길로트(오축_다섯 개의 두루마리, Five Scrolls)’라고 불리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칠칠절(오순절)에는 롯기를, 예루살렘 멸망일에는 예레미야애가를,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했던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절기인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에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절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의 추수기,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의미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전도서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문인 1:12~12:8절에는 4개의 설교(강화)가 있습니다. 제1설교(강화)는 1:12~3장까지, 제2설교(강화)는 4~5장, 제3설교(강화)는 6:1~8:14, 제4설교(강화)는 8:15~12:7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분은 6:1~8:14까지의 제3설교(강화)의 첫 부분입니다. 본문 1~6절은 재물과 부유함, 많은 자녀와 장수를 하였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전도자는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운을 먼저 띄우는 것으로 보아서 전도자에게도 놀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가졌습니다. ‘재물’, ‘부요’, ‘존귀’는 모두 ‘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특히 ‘존귀’는 ‘막대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를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는 두 번째 부자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2~4등을 합하면 1등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분은 지금 병석에 수년간 누워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식물인간인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그 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 지라도, 자기 손으로 옷 한번 입어보지 못하고 있고, 자기 손으로 장갑 한 번 꺼 보지 못하고, 양말 한 번 신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해진미로 가득한 식탁에서 한 끼라도 먹지 못하는 물론, 자기 손으로 밥알 하나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아무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식물 인간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은 자기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재물과 부요, 존귀를 모두 갖고서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렇지 않으심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밭에서 소출이 풍성해지자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현재 곳간에는 다 쌓아둘 수 없으니, 그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 두리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자기 밭에서 추수된 것, 자기가 벌어들인 것은 자신이 전부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네 밭에서 추수된 것, 네가 벌어들인 것은 네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지?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는 참 어리석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3)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니

구약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長壽)_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127:3~5상)”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10:27 상반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은 100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여 오래 살았을지라도, 그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

고, 제대로 매장되지 못한다. 차라리 사산아(死産兒)가 더 나올 것이라고 한 숨 쉽니다. 자녀를 100명을 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아내들이 20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아내와 결혼하려면 굉장한 부자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말은 가문이 번창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런 집안은 굉장히 성공한 집안으로 여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수에 대한 언급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을지라도’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많은 해를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여러 해들 동안 살아갈 날들이 많다’입니다. ‘많은 해’, ‘여러 해들’, ‘살아갈 날들이 많다’ 등 복수의 해를 반복해서 씬으로 장수할 것을 말하는데, 문장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수를 하지만, 그 삶이 혼란의 연속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바로왕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때의 야곱의 답변을 오늘 본문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로 표현하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게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앞으로의 인생길에도 각종 장애물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입니다.

(4~6) 낙태된 자는 햇빛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나온 아이(사산아)는 세상을 보지도 못했고, 인생을 알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곧 바로 안식을 누리지 않는가? 비록 1000년씩 두 번을 산다고 해도, 자기가 가졌던 것으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참 허무하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 년의 갑절’이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산다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도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사산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에 대한 허무함이 참으로 진하게 느껴집니다.

자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7~12절)

7~12절에서도 전도자의 허무함에 대한 탄식은 계속됩니다.

(7~9)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살아 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7절에서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속상함을 견디며 일을 하는 것은 입(먹는 것)을 위한 것이데, 그 식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9절에서 머릿속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직접 보면서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 낫지만 만족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뱀(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3:6상)”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욕망을 가지고 쳐다보았을 때, 첫 느낌이 ‘먹음직’과 ‘보암직’이었습니다.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의 출발이 먹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요일 2:16)” 이 세상에 있는 것 1번과 2번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즉 먹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먹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 만족함이 없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있는 먹는 것과 보는 것의 욕망은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그것을 다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스톱’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며, 인생을 허무함이 아니라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첩경입니다.

(10~12)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 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헛된 즐거움을 구하려고 하면 인생이 허무하게 됨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맞서보려 했던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이 자신의 마음을 꺾지 않고 끝까지 버팀의 결과는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생각하기도 두려운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

습니다.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맞섬의 대가는 그만큼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불과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 아래에서 전도자가 느끼는 허무함이 진하게 그리고 참 깊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관적인 시선이 느껴지거나, 염세적인 가치관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 위의 삶에 대한 갈망이 또렷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해 아래에서의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또 ‘재미있게’와 ‘의미있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나고 보면 모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해 위의 삶을 추구하는 더 분명한 길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헛되고 헛되니”가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의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주시지 않으셨다면 인생은 참 허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로 부요와 존귀를 누려도, 많은 자녀를 낳고, 2000년을 산다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허전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모르지 않으시기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의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는 물론, 우리의 매일 매일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나 “헛되고 헛되니”가 아니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와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 경험이나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2. 당신의 삶에서 채워질 수 없음에도 채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승화시키고 있습니까?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인도하시니”로 어떻게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4.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헛되고 헛되니’의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의미 있고 의미 있으니’의 해 위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형통한 날에는...

곤고한 날에는...

전도서 7:1~29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보다 나으며
2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됴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3 슬픔이 웃음
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4 지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5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6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술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7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
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
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발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쩔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11 지혜는 유산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12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13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
라 하나님께서 급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 형통한 날에
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
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15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16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17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니라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 나라 19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열 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21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22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든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23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4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라 25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 마음은 울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27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날날이 살피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28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지혜자의 태도(1~7절)

12장으로 된 전도서는 1~6장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한 것임에 대해서, 그리고 7~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 해 위를 구하는 삶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 위를 구하는 삶의 문을 엽니다. 또 전도서의 본문 부분에는 4개의 설교(강화)가 있는데, 세 번째 것이 6:1~8:14까지입니다. 어제 나눈 6장이 해 아래서의 삶의 허무함에 관한 한숨이었다면, 7:1~8:14은 그 한숨을 어떻게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숨으로 바꾸어 가는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지혜자의 태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좋은 기름’은 감람(올리브)나무에서 추출한 감람유(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된 것은 물론, 피부의 건조함을 막는 의약품과 화장품으로도 사용되었고, 잔치와 장례에도,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왕궁의 보물 목록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재산’이나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름’과 ‘기름’이 끝자가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첫 글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기름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름(재산, 재능)과 이름 중 무엇이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지를 저울질을 하면 언제나 ‘기름’ 쪽으로

천칭이 기웁니다. 종종 “이름이 밥 먹여주나?”라고 이름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갈수록, 살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수록 ‘이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지나온 세월동안 ‘기름, 기름, 기름’하며 살았던 세월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2~4)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돌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옴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마음이 편하기로 하면 장례식장보다 결혼식장이 훨씬 낫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울지만, 결혼식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웃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식장에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과거 가난한 시절에 결혼식은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도 음식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배불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0년 100년 동안 살며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낫지만,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삶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 집니다. 또 부모는 돌아가시면 뒷산에 묻지만 자녀는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를 잃은 장례식에 조문을 가면

목회자도 마음이 놀랍니다. 또한 아주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에게도 불현듯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확실히 결혼보다는 죽음(장례) 앞에서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7)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 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꾸지람이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꾸지람과 책망을 들을 때는 이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것이 거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내용은 틀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중심으로 듣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탐욕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탐욕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솔로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신이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지혜가 있었지만, 국력을 더 크게 하고, 자신

을 세상에 더 드러내게 하려는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였던 그는 나라를 두 동강나게 한 원인제공자가 되었습니다. 뇌물에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뇌물에 오염이 되고나면, 명철은 사라지고 맙니다.

더 나은 선택(8~14절)

8~14절은 ‘더 나은 선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 (8)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 (10)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이나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중학교 때의 성적은 고등학교에 갈 때에 필요하고, 고등학교 때의 성적은 대학교 갈 때에 필요합니다. 물론 대학교 때의 성적은 대학원이나 취직할 때에 필요합니다. 지금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다 되었는데, 초. 중. 고등 시절의 성적이나 받은 상장을 자랑한다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독일 속담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Ende gut, alles gut)’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 끝맺음은 이전의 삶을 아름다운 의미로 승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할 1번이 교만이고, 2번도 교만이고, 3번도 교만입니다. 물론 99번도, 100번도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유익한 경우는 비록 지금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과거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발판삼아 현재를 새롭게 수용할 때는 유익하지만, 현재를 직면하려 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있게 하는 것이라면 과거를 떠올리는 것은 무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끊임없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 특히 거기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등을 떠올리며 불평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지금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표준새번역. 12)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 주기 때문이다.

돈과 지혜가 사람을 함께 보호하지만, 목숨을 살려내는 것은 지혜라고 합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외적인 것입니다. 그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에도 많은 도움을 줄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와 질문 앞에서는 결코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 때는 반드시 지혜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 지혜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5)”고 했습니다.

(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거나 우리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으로, 또 최상으로 충분히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더 바르게, 더 신실하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섭리’의 ‘섭(攝)’자가 ‘당기다. 쥐다’의 뜻입니다. 그 한자에는 ‘손 수(手)’ 변에 ‘귀 이(耳)’ 자가 3개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듣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 듣는 것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는 것이고, 과거를 듣고, 현재를 듣고, 미래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깊은 지혜입니다.

절제와 바른 선택(15~22절)

15~22절은 절제와 바른 선택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8)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에 있는 것처럼 의롭게 살아도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살아도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로운 삶과 악한 삶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지킬박사인데, 어떤 날은 하이드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자신의 의로움을 과도하게 내세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악하게 사는 것만 해도 바르지 않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더 과도하게 악한 일을 행하다가 자기가 행한 악에게 무너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또 인생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욱 더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무궁함(23~29절)

23~29절은 ‘지혜의 무궁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전도자는 궁극적인 지혜를 찾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혜가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분만 영원한 지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의 막이 내립니다.

(29)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한 길-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후로 언제나 ‘여러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꾀를 낸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 3의 길,

제 4의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것이 더 낫겠다고 우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길이 더 옳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인간의 지혜 또는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지만, 그 결과도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우리의 2019년이 진정한 새해로 엮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을 더 좋아하고, 지혜보다는 재물을 선택하고, 형통할 때는 즐거워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곤고한 날에는 비관과 절망으로 아무 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함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해 우리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심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언제나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이 진정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지금까지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결혼식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조문한 장례식장에서 가장 깊이 느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2.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말씀하시는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배운 인생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3.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생각한 가장 큰 부조리(모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4.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들은 많은 죄를 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낸 ‘죄’의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5.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곤고한 날은 물론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하나님 바라기

전도서 8:1~17

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 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2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 이니라 3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4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5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6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7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8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견져낼 수는 없느니라 9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10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12 죄인은 백 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나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3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

함이나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15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16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17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 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한계(1~8)

오늘날 현대인들은 ‘허무’라는 병에 걸려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과 경쟁하며 공부에 매달리지만, 문득 돌아보면 성적표의 숫자놀이에 불과한 그 노력이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직장인들은 낮밤 구분 없이 사무실과 현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지만, 업무의 과중함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갇혀 내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기계처럼 느껴지는 순간 허무가 찾아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일평생 생의 현장을 달렸으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지만, 장성한 자식들은 제 살길 가느라 바쁘고 육체는 병들어 여기저기가 아파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허상을 따라 살아가다 갑자기 허무함을 깨닫는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된 전도서의 주된 주제 역시 ‘허무’입니다. 1~6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허무함을 이야기했다면, 7장부터는 그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함께 위를 보는 삶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야말로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의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서울 강북지역과 고양시 일부, 북서부 수도권 지역에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마포구도 장애지역에 포함되어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과 전화는 먹통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업무가 극히 적어졌고, 내선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발생한 화재였기에 다음 날 각 별관으로 예배 송출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하느라 그날 교역자들은 초비상 상황에서 업무를 했습니다. 통신장애를 받은 지역의 가정집들은 TV, 전화, 인터넷을 할 수 없었고, 영업을 하는 가게들도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큰 손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화재가 저에게 알

려준 교훈은 인간의 삶이 제아무리 복잡하다 하지만, 실은 화제로 끊어진 인터넷 선 하나에 달려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끊어짐으로 우리는 업무도, 전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기계를 세팅하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 선 하나 끊어지면 허무에 빠지듯,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선이 끊어지면 제아무리 잘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즉시 허무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영적 연결선이 안녕하냐고 묻습니다.

(1)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새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많이 배웠다고 지혜자가 아니며,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수수께끼 같고 불가사의한 인간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는데 지혜가 드러나는 통로를 사람의 얼굴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25)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시편 80:3)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니엘 9: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향배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인생의 참 지혜가 하나님과의 연결선에 있다면, 그리고 그
연결선이 우리의 얼굴에서 증명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꼬이고 엉킨 인생의 문제
앞에서, 왜곡되고 어긋난 모든 관계 앞에서, 절박하고 낙심되는
상황 앞에서, 삶의 빛나간 조각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알지 못
해도,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가리산지리산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7~8)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혜(9~17)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멈출 때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하기 시작할 때에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을 때 아닙니까? 악인이 형통해지고, 의인이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인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14)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이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형벌은 생각보다 가벼우며, 선한 사람들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여 뭉치기보다 제각각 흩어져버리는 것을 볼 때마다 인간인지라 용기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하며 자기 자신에게 합당한 몫을 주장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인 것 같으나, 그 안에 담긴 여러 갈등들 속에서 생겨나는 모순들은 우리를 답으로 인도하기보다 길을 헤매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진리가 있고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건만, 우리 삶은 왜 이토록 문제투성이요, 모순덩어리이며, 어둠과 악으로만 그려지는 것일까요? 전도서 저자는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17)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 생각과 내 가치, 내 정의의 시
선으로만 본다면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을 말해주고 있
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입니다. 나
는 왜 인간으로 존재하며, 세상은 왜 이토록 처참하고, 환경은
이토록 잔인하며, 악은 왜 이토록 승승장구하는지 분별할 수 없
을 때, 나의 정의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노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그것
은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인상 쓰는 자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을 굳게 잡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오늘의 기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지혜 없는 우리가 어설픈 경험의 줄자로 세상을 측량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배운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 짧은 인생으로 다 담아내려했고,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자그만 손으로 풀어보려 했습니다. 그것이 내 방식의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가 지혜자입니까? 선부른 정의보다 하나님의 임재 앞 겸손함으로 인생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굳게 잡음으로 감히 하나님의 방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허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과 나의 영적 연결선은 안녕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그러한 정의를 내리셨습니까?
3. 내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라는 말에 나는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는지 거울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4. 나의 정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붙잡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봅시다.

묵상할 날 :

지혜자의 말

전도서 9:1~18

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2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4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낮기 때문이니라 5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6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7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 지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8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 지니라 9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
 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니라 10 네 손이 일을 얻
 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읍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11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12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
 에 걸리느니라 13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
 이 이러하니 14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15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16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
 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17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
 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18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
 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전도서는 노년기의 솔로몬 왕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록한 내용입
 니다.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본론(1:12~12:8)은 4개의 설교(강
 화)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은 마지막 4번째 설교(8:15~12:7)의

중간부분입니다.

죽음이 예정된 연약한 존재(1~6절)

(1)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는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사랑과 미움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 개인의 컨디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2~3)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상반된 개념 다섯 쌍을 열거하며, 그와 같이 상반된 개념과는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궁극적 일반, 죽을 수밖에 없는 동일한 운명임을 교훈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구태여 선한 개념을 쫓기보다는 쾌락을 쫓거나 방종의 삶을 선택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미친개처럼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라며 거칠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6)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궁극적 운명 죽음.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행사에 참여 할 수 없어지기 전에 생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상반된 평가를 받는 동물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개를 대부분 더럽고 천박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멸의 대상이나 무가치한 사람에 비유할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반면 사자는 매우 강한 존재로 백수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의 격차가 분명한 동물이지만 생과 사

의 경계에 있어서는 그의 평가와 무관하게 생명이 있는 것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생명과 삶이 유한
하기에 더욱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한한 삶에 대한 자세: 쾌락이 아닌 희락(7~10절)

(7~9)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나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나

기한이 정해진 삶이지만, 이는 우리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자리에서의 수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앞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허락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습니다. 허락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
기며, 하나님과 더불어 짝지어주신 아내와 매일의 삶을 잔치의
연속으로 만들며, 감사와 행복의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
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희락을
누려야 합니다.

(10)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자해도 없음이니라

삶의 현장에서 누리던 것들과의 완전한 단절이 죽음임을
재차 언급하며, 생명이 있을 때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합니다. 장례식에 가면 응당 숙연해 집니다. 분주했던
일상 가운데 불평에 눌러 살았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
고, 소홀히 여겨 잊고 있었던 생명에 대한 감사를 곱씹게 됩니
다. 오늘 하루만큼 죽음에 가까워졌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하루
가운데 허락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한한 삶의 연약한 존재(11~12절)

(11~12)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울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앞서 2인칭 시제와는 달리 본 절에서는 1인칭 시제로 스스로

돌아본 삶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목적이 주어질 결과에 있다면 실망할지 모릅니다. 보다 빠른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맹스런 사람이라고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다고 총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부를 누리는 것도, 유능하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결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시기와 기회인 까닭입니다.

인생을 종종 스포츠에 비교하는데, 뚜렷한 전력의 차이에도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러시아월드컵 당시 독일은 FIFA랭킹 1위였고, 대한민국은 57위였습니다. 결과는 2대 0으로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우리에게서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만, 독일 국민들은 얼마나 실망을 했을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이 언제나 수학공식과 같지 않고, 동물들이 그물에 걸림과 같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유한한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은 이를 통해 자기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을 넘어 무한자요 절대자인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지혜(13~18절)

(13~16)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홍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니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길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지혜,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강조합니다. 큰 왕, 큰 홍벽 앞에 속수무책인 작은 성읍을
구한 것은 칼과 방패를 손에 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였습니다. 그
로 인해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와 존경을 드림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성읍의 사람들은 초라한 행색의 지혜자의 모습에
그의 지혜마저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하는 많
은 이들이 범하는 우를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것이 솔로몬 당시 사람들만의 모습에 국한된 것인지 곰곰히 생
각해 봅니다.

(17~18)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해아래 유한한 삶을 사는 유약한 존재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거듭해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권세,
큰 영향력을 가진 이의 말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

훈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 이 말들이 기록된 성경이 그 어떤 무기보다 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의 선이 한 사람에게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스스로 돌아봄이 필요합니다.

2018년의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곳에서 올 한해 어떻게 지내왔는지 잠잠히 돌아보기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했는지, 쾌락이 아닌 주님과 더불어 희락을 누리며 지내왔는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지혜를 구하며 살았는지 잠잠히 헤아려 봅니다. 2019년 새해가 하루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허락해 주실 새해. 이전 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행하심을 보고 듣는 은혜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은혜의 하나님. 2018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두손을 모읍니다. 유한한 삶을 쾌락과 방종으로 허비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없이 귀한 생명, 허락된 삶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루하루 최선을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지혜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 앞에 순복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행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 보고, 듣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우리의 지난 삶은 유한한 삶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의 유한한 삶을 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본문을 묵상하여 봅시다.
3. 우리의 현재 삶은 쾌락과 희락 가운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봅시다.
4.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헤아리며 결단해 봅시다.

묵상한 날 :

우매한 자

전도서 10:1~18

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2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3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5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6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7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8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9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10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11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12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14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리요 15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17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네게 복이 있
도다 18 게으른즉 서까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19 잔
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20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
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지혜와 우매(1~3절)

(1)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와 우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절을 다음
과 같은 그림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가 빠
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1절, 공동번역) 귀한 향수 한 병을 망치는 법은 어렵지 않
습니다. 큰일도 아닙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면 충분합니다. 사
람 됨됨이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것도 커다란 실수 때문만은 아
닙니다.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그 '적은 우매'가 사람됨을 망칩
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잘못으로 공동체가 어려워지
는 게 아니라, 그 적은 우매함이 공동체에 몃살을 앓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마다 '파리'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우매'를 제거해야만 평화가 찾아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파리' 일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 안에도 여지없이 '우매함',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찌 나 하나는 늘 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3, 새번역) 우매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3)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성경은 3절을 기막힌 통찰력으로 번역했습니다. “바보는 길을 갈 때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걷는 모습만으로도 ‘여기 또 바보가 간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만천하가 다 압니다. 스스로 우매함을, 그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압니다. 본인만 모를 뿐입니다. 본인만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 자신만 ‘지혜롭다’, ‘옳다’ 여깁니다. 여기에 자기 고집까지 피우니, 어안을 병병하게 합니다.

내 안에 파리를 틀고 있는 그 “우매함”,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살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잠잠히 시간을 내어 그렇게 내 자신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헤아려 보십시오. 내 안에 분명히 ‘끔찍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며 몸서리칠 때까지 일부러 고요한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할 때만 벌거벗은 임금님 꼴을 안 당합니다. 훌쩍 벗었으나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며, 한껏 ‘뽐’을 내던 그 가련한 임금님 말입니다.

주권자의 허물에 대한 자세(4~7절, 16~20절)

(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 받게 하느니라

현실적인 격언입니다.윗사람에게 다소 억울한 꾸중을 들었더라도, 아니면 윗사람이 내게 부당한 화를 낸다고 해도 자리를 박차고 뜨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때 침착하고 공손하면 전 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숨겨진 속내를 들추고 있는 것 같아 면목 없게 합니다. 작은 억울함에도 부글부글 되는 우리 속내 말입니다. 들끓는 감정으로 들썩 들썩 되는 우리 속마음 말입니다.

(5~6)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주권자의 허물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어찌 허물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6절, 새번역).”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한 사람을 한직으로 내뭍니다. 이는 분명히 주권자의 허물입니다. “허물!” 이 외에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이 주권자의 허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답변에 앞서 주권자의 허물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16)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19~20)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이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왕은 어린 풋내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신들은 밤새 잔치판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철없는 말을 지껄입니다. “사람은 즐거우려고 잔치를 벌인다. 술이 있어야 살맛이 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19절, 공동번역)” 이런 주권자들의 농단 아래 있는 백성은 ‘화’입니다. 가엾은 민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

는지 아십니까? 20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임금 욱은 잠자리에서도 하지 마라. 부자 욱은 침실에서도 하지 마라.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20절, 공동번역)” 그런 주권자들을 욱하지 말립니다. 욱으로 될 거 같으면 욱 몇 바가지 끼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속은 시원 할 수는 있어도, 욱으로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말이 화를 더 할 뿐입니다.

악함과 약함, 인간의 한계(8~9절)

(8~9)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함정을 파는 일은 악한 짓입니다. 그 악한 짓에 언젠가는 자기 스스로가 걸려들게 됩니다. 못된 심보로 남의 돌담을 허는 자가 있습니다. 돌담에 숨어 사는 뱀에 영락없이 물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처럼 악하고 못된 짓을 할 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말은 바 소임을 다하며 채석장에서 돌을 떠내는 순박한 사람도 때로는 사고를 당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일심으로 나무를 쪼개는 선한 사람도 때로는 다칩니다. 이처럼 인간은 약합니다. 최선과 선한 뜻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매함',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파리'는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내 스스로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권자들, 윗사람들의 허물을 마주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허물!' 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허물이 윗사람들만의 것입니까? 내 허물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티', 윗사람의 '티'만 셈하며 불만족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의 '들보'는 어찌 하면 종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악함과 못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함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가 절실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스러운지, 참답이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가 절박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2019년 한 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한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우매한 자입니다.

우리 안의 '들보'가 상당합니다.

내 덕지덕지한 허물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최선과 선한 뜻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니면 믿을 구석이 전혀 없는,

의지할 이 아무도 없는 가여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2019년 한 해,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 안에 있는 '우매', '어리석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보십시오.
2. 주권자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 편입니까? 그런 반응에 대해 오늘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3. 나의 최선과 선한 뜻으로 다 되어지지 않는 그 한계의 상황 앞에 마주한 적은 언제입니까? 그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새해 새롭게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할 날 :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11:1~8

1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 일곱에게 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 이니라 3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 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4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과중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5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 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7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8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 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삶의 자세(1~6절)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고 강조하는 솔로몬이 노년에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 줄지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나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1절과 2절 말씀은 노년의 재력가가 재테크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속담 같기도 하고, 격언 같기도 하며, 약간은 난해한 교훈 같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해상 무역에 투자할 것을 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선을 권장하고 격려하는 해석입니다. 두 가지 해석 중, 고대 근동의 문헌을 기초로 한 두 번째 해석이 적절해 보입니다. 인생의 허무를 언급한 전도자가 사람이 사는 동안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집트의 속담에 ‘선행을 하고 그것을 물속에 던져라. 네가 목마르게 될 때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선행을 하라. 너의 빵을 물 속에 던져라. 그러면 어느 날 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속담으로 보입니다. 바울도 선행을 할 때, 때가 되면 그 결실을 얻게 될 것이기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언급하고 있

습니다(갈6:9).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대부분이 헛되지만 그 헛된 인생길에 우리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신 이웃을 위해 선을 베푸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노년의 전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은 7과 8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선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푸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일곱 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백 구십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선을 베풀 때 수혜를 입는 쪽은 베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베푸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 기억하게 했습니다(행20:35). 선한 행위는 다른 선한 행위로 되 돌아온다는 진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 전도자의 증언입니다.

(3~6)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피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밴 자의 태에서 빠져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절에서 6절 말씀은 인간의 지식이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며,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들에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연약함, 자연을 통해 임하는 재앙의 엄중함을 표현하며 넉넉함이 허락되었을 때 나누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눔은 젊을 때나 노년에나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 행할 일임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는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혜를 겸비했던 솔로몬이 이처럼 인간의 무지함을 힘주어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드리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노년의 전도자는 절절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정도의 재산이 모아지면 나누겠다는 생각은 생각에만 머물 뿐, 결코 우리로 나눔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먼 훗날 얼마나 모아 가지고 왔느냐는 질문 대신 얼마나 나누며 살았느냐고 물으실 주님 앞에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족하지

만 성실히, 부지런히 나누었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눔은 가능합니다. 마음이 곤고한 이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메말랐던 그의 사랑도 베품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7~8절)

(7~8)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빛은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 즉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히브리어 ‘마토크’는 ‘달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 자족하는 가운데 낙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삶의 낙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라’는 조언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반대되는 의미로 인생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날, 재앙과 시련의 날들도 있음을 언급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통해 복된 날을 누리되, 역경과 죽음의 날 또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할지라도’는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생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돌이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대해서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온갖 낙을 누리던 전도자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헛된 것이 헛된 것이 아니며, 유익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들을 때, 우리의 현재의 삶은 최선을 다한 삶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하루는 참 짧습니다. 아니 하루뿐만 아니라 한 해도 참 짧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매 순간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지어져 감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 않고 주님의 대책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히 길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온갖 낙을 누리던 솔로몬은 인생이 헛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이 덧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결코 헛된 것이 아님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2019년을 우리와 더불어 나아가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한 해로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갈 날들이 헛된 날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날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베푼 일로 인하여 후에 유익하게 내게 되돌아온 일이 있습니까?
2.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취해 보겠다고 고집한 경험이 있습니까?
3.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4.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5. 낙심한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한 날 :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1:9~12:14

9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10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1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곧 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3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5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6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9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10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1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12 내 아들이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11:9~12:8절)

전도서에는 서론과 결론 사이에 4개의 설교(강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4번째 설교(강화)가 8:14~12:8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11:9~12:8은 4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번째 설교는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전반부인 11:9~12:8은 청년시절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1:9상)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전도자 솔로몬은 청년시절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 하고 싶은 것,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에서 꽃이라고 할 만큼 소중한

다. 그 때에는 가진 것이 적고, 누리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시기는 장년의 시기보다 덜 성숙한 때이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쉽고, 자신을 방치하기도 쉽습니다.

(1:9b~10)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한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황금 같은 청년시절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과는 자신의 인생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셈하심)의 자리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이든지 이루어 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이나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무와 결혼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혼생활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 결과는 천양지차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 솔로몬은 마음에서 ‘근심’과 ‘악’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근심’은 ‘슬픔’, ‘원통함’, ‘분노’, ‘번뇌’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상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가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대학 입학이나 입사 시험에 낙방할 수 있습니다.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1~2년 빠르고 늦음이 인생전체를 놓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인생을 길게 산 사람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청년들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히 충분히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험에서 낙방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훨씬 큼니다. 그러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결국은 시험에 낙방한 것보다도 시간(인생)을 낭비하는 것에서 훨씬 더 손실을 봅니다.

또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이성교제 후에 헤어지게 되면, 마음이 몹시도 상합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자신에게 좀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깊은 호감을 느껴,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근심, 상한 감정을 잘 내어보내고, 잘 치유해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후에 후회할 가능성이 크고, 지불해야 할 대가도 정말 큼니다.

또한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악'은 육체의 약함을 틈타 죄를 범하게 하여 인생을 무의미하게 탕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성공하여 안일한 삶을 살게 하려는 가

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으로 성공하려는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에게서 물러가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은 당시에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보면 참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2:1~2)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구절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와 더불어 가장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고 하기보다, 인생을 많이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호소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궁지에 몰리자, 골리앗의 고향 블레셋까지 피난을 갔다가 거기도 여의치가 않자, 미친체하며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어다 그에

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34:8~10)”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때가 20대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한 평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곤고한 날’이 오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해’, ‘빛’, ‘달’, ‘별’은 모두 발광체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거나 어두워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늘’은 살아 있는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입니다. 즉 가장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고서 지난 세월을 신앙의 눈으로 돌아볼 때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3~5절은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어떤 것인지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3~5)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으므로 고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전도자는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신체의 기관이 맞이하게 되는 노화의 과정을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은 팔 다리가 노쇠하여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었던 사람들도 팔 다리가 구부러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아가 점점 빠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맷돌은 곡식을 가는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치아도 음식을 가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임플란트와 같이 치과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는 “나중에 이가 다 빠지더라도 틀니를 걸 이를 양쪽에 한 두 개씩은 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사람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눈이 어두워짐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맞추어도 다초점안경과 함께 책보는 돋보기안경, 컴퓨터 보는 돋보기안경을 따로 맞추어야 합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해져서 잠을 잘 이루지 못

함을 의미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지는 것’은 귀가 점점 먹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까 무섭고, 길에서는 넘어질까 무섭다고 합니다. 연세 높으신 분이 넘어져서 엉덩이뼈를 다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살구꽃이 피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살구꽃이 분홍색 꽃봉오리에서 만개하면 흰색으로 보이는 것을 백발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메뚜기도 무겁게 여겨진다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문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6~8)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향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 줄이 풀려 금그릇이 깨지는 것과 향아리가 깨지는 것, 우물 도르래가 깨지는 것 등은 전부 죽음을 뜻합니다. 이런 늙어감의 과정은 누구나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서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해 위의 삶,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시 강조합니다.

사람의 본분(9~14절)

9~14절이 결론입니다.

(9~10)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내용 외에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에 관해서도 전문가였고, 동물, 심지어 파충류, 어류에 대해서 깊은 식견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서 조언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같이 하는데, 그 비용은 무려 수십만 불, 심지어 수백 만 불이나 합니다. 그의 지혜는 돈 버는 것에 불과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분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피곤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도서의 대단원의 막은 이렇게 내립니다.

(13~1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앞의 내용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인생을 살며,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무엇을 이루어도 헛되게 여겨집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의 돌봄을 걷어차고 가출하여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외면함 자체가 불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은 언제나 불경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2)’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12:1상)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허무한 인생, 해 아래의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다.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창조주’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인생을 성전의 삶으로 잘 지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올 일 년도, 남은 생애도 ‘창조주’를 늘 기억함으로, 지어저가는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 아래에 살지만 어떻게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는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그 때에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셈하심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곤고한 날도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때도 온다는 것이 가슴 깊이 와 닿게 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으로 듣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리고 올 한 해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어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지어져가고, 우리와 한국 교회가 지어져 가고, 우리와 한국 사회가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권합니다. 당신이 처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2. 당신의 몸(기관)이 예전과 두드러지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 어디입니까? 우리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믿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며, 해 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당신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의식하십니까?
4.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고 당신의 삶이 어제보다 더 새로워지고 성숙해 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할 날 :

솔로몬의 휘장, 바로외 병거의 준마

아가 1:1~17

1 솔로몬의 아가라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
음이로구나 3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를 같으
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
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
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
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
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보다 같구나 6 내가 햇볕
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
하였구나 7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 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 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외 병거의 준마에 비히었구나 10 네 두 뺨은
땀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시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
주머니요 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언제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
나 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 나

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장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서까래로구나

아가서는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 솔로몬 왕과 솔람미 여인이 서로의 사랑을 부끄러움 없이 걱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랑의 노래 집입니다. 이 책은 성경 해석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책입니다. 성경 안에 이렇게 정열적인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책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 해석자들은, 이 책의 표면적인 의미처럼 인간의 사랑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곧, AD 100년에서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이 책의 성적인 특징을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과 솔람미 여인으로 대표되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기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사랑,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만 치환하여 해석해 왔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남자를 하나님이나 예수님으로, 여자를 교회나 성도로 치환하여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표현을 비유로만 바라보고 아가서를 조명한다면, 쉽게 한계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녀의 친밀한 관계는 온데간데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 부각시키는 우를 범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해석의 두 지평 사이에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갈구하는 신부(2~11)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신부의 독창, 신랑의 독창, 그 외 등장인물들의 합창이 어우러지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2~4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2~4)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신부는 달콤한 향 기름 같은 신랑의 입맞춤과 포도주보다 더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신랑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왕이라 표현하며, 그의 침실로 데려다주기를 요청합니다. 신부에게 신랑은 이 세상 어떤 여자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왕”과 같은 존귀하고 멋진 남자입니다. 3절과 4절 말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이 신랑을 사랑하는 것으로 느껴질 만큼, 신랑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쯤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을 떠올려봅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낯선 존재인 하와를 보고, 감

탄했습니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는 그의 감탄은 낮선 이를 경계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도구화 하는 일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사뭇 낮선 풍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부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간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신랑을 초대하는 음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를 다해서 상대를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곱씹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경탄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부부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가정 파괴는 없을 것이고, 한 부모 가정도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신앙의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그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은, 신앙의 부모가 되기 이전에 신앙의 부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서로를 향한 경탄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 태도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출발점입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고 거룩하게 사는 모습은 이 둘을 지켜보는 이들 모두에게 참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한편 신랑을 위해 준비된 신부는 그 외모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솔람미 여인의 피부는 “검어서” 솔로몬 왕과 같은 신랑에 어울리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달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밝은 피부를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 밝은 피부
부를 갖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의 오빠들이 신부의 순결을 지킨
다는 명목으로, “포도원”으로 표상된 육체적인 매력을 가꿀 기
회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6)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갈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짙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신부는 자신을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말합니다. “계달”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로,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 살면서, 흑염소의 털로 짠
텐트에서 생활했는데, 그것이 “계달의 장막”입니다. 아무래도 한
곳에 정주하며 문명을 키워왔던 이스라엘과 달리 유목민들의 생
활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가꾸
지 못해 검다고 말하며,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계달의 장막”
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에게 비친 신부의 모습
은 ‘계달의 장막’처럼 검고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휘
장’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신부입니다. 게다가 9절에서는 신부를
당대 최고의 병거 중 하나였던 “파라오의 병거를 이끌던 준마”
와 같다고 말합니다.

(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무나 왕의 병거를 끌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에게 병거를 끌게 할 것입니다. 그저 잘 생겼다고 왕의 병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잘 달려야 했을 겁니다. 신랑은 자신의 신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아합니다. 신부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가꾸지 못했다고 여기지만, 그런 신부를 신랑은 최고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인 신부에게 아름다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 신랑은 11절처럼 값비싼 은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겉으로 드러난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나라를 흔들리게 할 만큼의 아름다움도 세월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수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범인과 같이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외모가 사랑의 절대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참된 사랑은 외모나 사회의 편견을 초월합니다. 비록 외모에 이끌려 호감을 갖게 되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외모가 아닌, 더 깊은 차원의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한 감정적인 끌림으로 만나 마음

을 키워가고 결혼합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더 깊은 차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그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갈등 상황이 되었을 때, 외부로부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에 대한 다방면의 신뢰를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견고하지 못하고, 금방 허물어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경탄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런 호감이 더 넓고 깊은 지평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조망해 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달의 장막과 같이, 우리의 몸조차 꾸미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부인 우리들을 솔로몬의 휘장처럼,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귀히 보시고, 맞아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의 죄는 그분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순종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솔로몬의 휘장 같고,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거룩을 열망하고 살아가도록 힘을, 능력을 공급해줍니다.

신부와 신랑이 주고 받는 대화(12~17)

이제 12절에서 1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침대에
서 다정한 대화를 나눕니다. 신부는 자신의 품에 안긴 왕의 향
기에 감탄합니다.

(12~14)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언제든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신부가 나도 향기를 신랑에게 내뿜고 있다면 신랑은 신부
에게 몰약 향과 고벨꽃 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름은
히말라야의 인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
유로서, 매우 희귀하고 값진 향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바로 그 기름입니다. 둘
은 서로의 ‘향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향기’는 두 사람의 매력
뿐만 아니라 인격을 반영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서로의 향기를
주고 맡는 데서 비롯됩니다. ‘향기’에 빠진 두 사람은 이제 서로
의 아름다움을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서로의 눈에 비친 자신의
배우자는 아름답고도 아름답습니다.

(15~16)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더 이상 아름다울 수 없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아름다움이 가능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매력과 인격의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15절처럼 “내 사랑”이라고 부르고, 신부는 신랑을 16절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인격의 향기. 누구나 풍기고 싶어 하는 향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오래 있고 싶고 푸근하면서도 품위 있고, 매력 넘치는 그런 사람.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매력을 점점 더 발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말씀에 충실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믿고,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인격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배우자와 함께 지어져 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조차 하나님 앞에 갈고뎛을 힘과 능력이 없어 검디검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솔로몬의 휘장 같고, 파라오의 병거를 이끄는 준마와 같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 욕망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가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오늘도 인도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피부가 검은 여인은 자신을 일컬어 무엇에 비유합니까? (5절)
2. 여인의 자기인식과 왕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입해보세요.
3. 나는 외적인 매력과 내적인 인격(향기)을 같고 닮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4.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람직한 부부 관계를 세워 나가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묵상한 날 :

사랑은

아가 2:1~17

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보다 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
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7 예루살렘 딸들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
고 깨우지 말지니라 8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
로 엿보는구나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 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
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
은 아름답구나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
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 이라 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
구나 17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노래집으로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5:1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시작’을 노래하고 있
다면 5:2~8:14는 ‘신랑과 신부의 깊어진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
니다. 관련하여 오늘 본문은 1장에 이어 더욱 친밀해진 신랑과
신부의 사랑 노래입니다. 먼저 1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신을 가리켜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
의 백합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론’은 읍바에서 갈멜산 남부지
역까지 이르는 해안 광야지대로 이 지역에는 들꽃들이 많이 자
생하고 있습니다. 수선화는 그 중의 하나입니다. 백합화 또한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으로 신부는 자신을 그 흔한 꽃
들에 비유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
입니다. 그에 대한 신랑의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부는 스스로를 ‘백합화’ 라고 칭하며 겸비한 자세를 취하지만 오히려 신랑은 그런 신부를 향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라며 가시나무와 대조함으로 백합화의 격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배우자 상호 간에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입니다. 비록 상대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능력을 지녔을 지라도 내 배우자만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단 한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상대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배우자는 오히려 나를 높게 평가해 주고 고귀하게 여겨주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비한 모습을 지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사리라” 자신의 겸손에 대해 신랑으로부터 품격 있는 칭찬을 받자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노래를 6절까지 이어갑니다. 먼저 3절 상반절입니다.

(3a)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백합화와 같이 평범한 자신을 품격 있게 대해주는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 고백은 점점 발전되어 갑니다. 신부는 신랑을 가리켜 ‘사과나무’ 라고 합니다. 그것도 ‘수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 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과나무는 과실나무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신랑이 자신을 가시나무들과 대조하며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자 신부 또한 신랑을 왕처럼 존귀한 자로 존중해 줍니다.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품격을 높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 보혈까지 흘리며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느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존중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3절 후반절입니다.

(3b)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부는 자신의 신랑을 사과나무에 비유하며 그 그늘에 앉아 심히 기뻐하였고 달콤한 열매를 맛보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신랑의 그늘, 곧 보호 아래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신랑과 신부, 배우자 상호 간에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의 그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뜨거운 별을 피하여 쉴 수 있는 그늘, 치열한 삶으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주는 것, 함께 매진해 가야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영원한 그늘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처요 보호막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시편 63편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그늘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해주심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자신을 잔칫집으로 이끌어 간 신랑의 사랑에 대해 신부는 ‘깃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깃발’은 특히 군대의 깃발을 일컫는 것으로 특히 군기는 군인의 전의를 북돋우며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상징물입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은 이처럼 신부의 자랑거리가 되어 삶

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깃발로 세우고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 삶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부터 6절까지는 신랑의 사랑이 어떠하였는지를 노래하는 내용으로 6절에 의하면 ‘안아주었다’ 곧 ‘포용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포용’입니다. 상대의 그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며 감싸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감싸 안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서로의 잘못을 허용하고 이해하며 감싸 안아주는 것,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인 배우자 간, 그리고 성도 간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한편으로 7절은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그 사랑을 깨우지를 말기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다시 신부가 신랑에 관하여 하는 말입니다.

(8~9)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본문에서 ‘산’과 ‘작은 산’은 신랑과 신부, 둘 사이를 가로 막는 장애물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마치 노루같이, 어린 사슴같이 그 난관들을 뛰어넘어 자신을 향해 달려와 창살 틈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신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뛰어넘음’입니다. 모든 차이를 뛰어 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신랑과 신부가 될 수 있었음은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며 사랑의 힘으로 그 틈을 뛰어 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차이를 뛰어넘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신과 인간이라는 차이를 사랑으로 뛰어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서로 간의 차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사랑으로 극복하려 노력해 나갑니다.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노래입니다.

(10~14)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0절부터 14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랑의 구애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가자’ 입니다. ‘사랑’은 ‘함께 감’, 곧 ‘동행’입니다. 본문에서 신랑은 신부에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푸근한 봄의 땅으로 ‘함께 가자’고 합니다. 한국 가곡 중에 ‘그대 있음에’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중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네 나를 불러 손잡게 해”…

사랑은 그대가 있음에 내가 비로소 존재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때에 그대의 손을 잡고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때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가 맺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날리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그 성령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우리와 동거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5절은 다시 신랑에게 하는 신부의 말입니다.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신부는 신랑과의 사이를 허물려 하는 장애물을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포도원에 침입하여 나무를 갉아 먹는 등 포도농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포도원과 여우’의 비유를 통해 신부가 신랑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허물려는 악의 세력들이 또한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존재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지속되기 마련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신부가 신랑에 관하여 다른 이에게 하는 말이며 마지막 절인 17절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16)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신부는 신랑이 자신에게 속하여 있고 자신 또한 신랑에게 속하여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속함’입니다. 하지만 ‘구속’이라기보다는 ‘연합’입니다. 또한 ‘사랑’은 ‘상대의 아름다움을 계속 발견해 나가는 노력’입니다. 사랑하면 대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은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곧 옵니다. 그 사실을 기억 하시며 ‘자기애’ 라는 이기적인 비늘을 벗어버리고, ‘오늘 더’ 내 배우자를, 가족을, 교우를,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하시며 오늘을 새 날로 엮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아가서 2장을 통해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을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사랑하려 해도 사랑할 수 없는 때가 불현듯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오늘 살펴 본 사랑의 다양한 속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2. 오늘 내게 부족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3. 오늘이 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사랑으로 생을 매듭짓고 싶습니까?
4.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

아가 3:1~11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 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 예루살렘 딸들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7 불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쌌는데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9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11 시온의 딸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신랑을 찾아서(1~5절)

우리 민족은 조선시대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삼강오륜과 같은 윤리를 가치관으로 갖게 되었지만, 고려시대까지는 굉장히 활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가까운 예성강 하구에 대표적인 무역항인 ‘벽란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미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도 고려시대가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을 떠올리면, 고려가요 중에서 남녀의 자유로운 사랑을 노래한 작품 만전춘, 이상곡, 쌍화점은 그것이 풍기문란을 일으킨다 하여 조선시대에서는 금서(禁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품을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_남녀가 서로 즐기는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남녀상열지사와 같은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내용의 적나라함 때문에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왜 성경 속에 있어야 하는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이리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한편의 오페라(가극)와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솔로몬왕의 솔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즉 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책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구태여 성경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 최대의 절기는 그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입니다. 아가서를 유월절에 읽었는데, 만약 이 책이 연애시라고만 한다면 그렇게 중요한 절기에 낭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언’을 ‘성전의 뜰’에 비유하고, ‘전도서’는 성전 안의 ‘성소’에, 그리고 ‘아가서’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비유합니다.

그렇다고 아가서를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해석은 ‘솔로몬왕=하나님’, ‘술람미 여인=하나님의 백성’ 이나 ‘솔로몬왕=예수 그리스도’, ‘술람미 여인=교회’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지라도, 솔로몬왕이 실제 자기 이름까지 거명(1:1)해 가면서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노래한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왕과 술람미의 사랑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예표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부부지간에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술람미 여인의 임(솔로몬왕)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즉 연애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전반부인 1~5절은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지금 솔람미 여인은 몹시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이 신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은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밤’이라고 된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간으로 나뉜 하룻밤 전체를 뜻할 수도 있고, 그제, 어제, 오늘 등 며칠 밤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람미 여인은 밤새도록, 또는 여러 날 동안 꿈에서라도 입을 만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보고 싶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습니다. 만약 어렸을 때 헤어진 가족이 있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사여부라도 확인해 보고 싶고, 몹시도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꿈에서라도 만나보고 싶어 질 것입니다. 솔람미 여인도 사랑하는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서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밤에 침상에서’라는 말은 솔람미 여인이 꿈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꿈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혹시 큰 길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거리’와 ‘큰 길(광장)’이 모두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성 안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닌 것입니다. 또 큰길(광장)은 시장이 열리는 곳이고, 재판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와 광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솔로몬왕)을 보았는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만나면 모든 사람을 만난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도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도 동일합니다. 그 분을 만나면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을 만난 것과 같고, 그 분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만나도 마음에 진정한 만족도 없고, 마치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온 성안을 돌아다녀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여인은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3)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순찰하는 사람들은 그 성의 파수꾼들입니다. 지금도 파출소 경찰들이 마을을 돌며 살핍니다. ‘경찰(警察)’의 문자적인 의미

가 ‘경계하여 살핌’입니다. 길거리나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각자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혹 자신의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면 유심하게 볼지 몰라도 지나가는 사람을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볼 수도 없습니다.

또한 ‘행인들’은 문자 그대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유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동시내나 인사동 거리, 망원시장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만 가기 때문에 주위에 누가 지나가는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나 광장을 지나며,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순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유심하게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그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보았는지를 물었습니다.

특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찾는 사람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내 영혼’,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태도도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먼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고백했

습니다.

마침내 술람미 여인은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4~5)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마치 술람미 여인이 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는지 물어보다가, 순찰하는 사람 어깨너머로 자신이 찾는 사람이 눈 안에 들어온 느낌입니다.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자, 꼭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는 서로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 방해할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남녀가 만나 연인이 되면 서로가 집중해서 깊이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때는 주변에서 방해 하지 않고 서로가 잘 알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커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겉에 나타난 것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시작하는 것보다 잘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선물과 이벤트가 많으면 사랑이 깊지 않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은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합니다.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의 결혼(6~11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인 6~11절은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의 결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6)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마침내 여인은 자신의 처소에서 왕궁으로 가게 되는데, 몸 에 뿌린 향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향내를 내며 갑니다. 결혼식 당일에 신부화장을 곱게 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어떤 향기를 발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냄새를 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향기를 발하지 못하면, 악취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부가 오는 모습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감탄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6절의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어성경에는 처음에 나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

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신랑인 솔로몬왕과 신부인 솔람미 여인이 가마를 탄 모습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7~8)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명이 둘러섰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솔로몬왕은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인을 60명이나 보냈습니다. 특히 야간 기습에 대비해서 허리에 칼까지 차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반인들은 할 수 없지만, 솔로몬왕이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자기 배우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아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 없으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성(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배려(인정)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아내에게 배려(인정)를 받지 못하면, 밖에서 큰일을 이루어도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잘 매워지지 않습니다. 솔로몬왕이 타는 가마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9~11) 솔로몬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람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가마를 만드는 잣나무(레바논 나무)는 왕궁과 성전을 만드는 최고급 나무이고, 거기에다 은과 금으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또한 자색으로 깔개를 깔았습니다. 자색은 바로 왕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으로, 신랑은 머리에 아주 좋은 관을 쓰고 혼인예식을 올렸습니다. 지금 솔로몬왕의 결혼식은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그가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혼인예식을 예표합니다. 그 때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왕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여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것은 곧 거기에 걸맞도록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의 총각이라는 비늘, 처녀라는 비늘을 벗고서 상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지어져 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의 깊은 교제와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하는 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꿈에서라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람미 여인이 자신의 연인을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자신의 영혼을 다하고,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살게 하신 배우자와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감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신부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를 가장 간절하게 찾았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2.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가족들,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하며 존중하십니까? 또 상대에서 가장 배려 받고 존중받았다고 여겨졌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3.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향기를 발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아가 4:1~16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2 네 이는 목
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
태를 낳은 양 같구나 3 네 입술은 홍색 실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4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
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6 날이 저물
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8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
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
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오너라 9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꿩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 방울
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젓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2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

화와 나도풀과 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15 너는 동산의 썸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
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붙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입니다. 그 시를 처음 읽었을 때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
음을 너무도 잘 표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고 평범한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된
다는 뜻입니다.

광화문광장 부근의 교보생명 사옥 외부에 걸린 대형 글판
이 있습니다. 가로 20m 세로 8m 크기의 광화문 글판에는
1991년부터 매년 계절마다 총 네 차례씩 문구를 변경해 걸어
놓았는데, 주로 국내외 유명 시인들의 작품 한 글귀를 인용해
꾸며낸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걸린 문구 중 가장 사랑
받은 시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
도 그렇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
엇을 먹고 사는가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했으나 지금은 사랑하는 맘이 사라져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발견할 수 있는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솔로몬은 오늘 본문 속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지금 솔로몬은 솔람미 여인을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같은 말을 두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람미 여인의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눈은 순결과 온유함의 상징입니다. 흐리멍정한 눈이 있고 초롱초롱한 눈이 있습니다. 시력이 좋거나 쌍거풀이 저서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에 깊

이 빠져서 그것을 오래 바라보는 눈은 초롱초롱합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흐리멍텅합니다. 솔로몬을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의 눈은 사랑에 빠진 초롱초롱한 눈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다고 했습니다. 가지런하고 단정한 긴 머리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남성 듀오 둘다섯의 노래 ‘긴머리소녀’를 떠올리게 합니다. ‘빛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머리 소녀야’ 술람미 여인을 바라본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의 눈과 머리털을 깊이 들여다 본 후, 솔로몬은 이제 그녀의 이, 입술, 입, 뺨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2~3절입니다.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술람미 여인의 치아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고 합니다. 양을 목욕시키기 전에는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어 지저분 하지만 목욕을 시킨 후에 털은 희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쌍태를 낳은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어

서 치아가 곱고 나란하다는 뜻입니다. 입술이 홍색 실 같다는 것은 붉고 가늘어서 아름답고 건강한 입술이라는 뜻이며, 너울 속의 뺨이 석류 한 쪽 같다는 뜻은 여인의 얼굴을 가리는 천인 너울 속에 석류처럼 붉게 상기된 볼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솔람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본 후, 솔로몬은 목과 유방을 바라보며 묘사합니다. 4~5절입니다.

(1)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 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솔람미 여인의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다고 합니다. 그것도 천 개의 방패가 달린 망대와 같다고 합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비장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한두 명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천 명이 들고 나란히 서 있는 군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방패가 달려 있는 망대를 솔람미 여인의 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을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고 있는 어린 두 사슴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슴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두 마리 어린 사슴이 백합화 사이에서 꿀을 먹고 있는 모습은 사랑스러움의 극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오래 바라보고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을 묘사한 후,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7)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여자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비교불가라는 뜻입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습니다. 그 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아들을 그것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자세히 오래 바라보고 흠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흠이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다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 없는 존재로 사랑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을 신부로, 누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 신부야’, 9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10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야’ 11절에서 ‘내 신부야’ 12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사랑하는 여인을 누이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같은 부모에게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처럼 친근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12)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의 온 몸에서 풍기는 각양 향품보다 더 향기로운 체취를 통해서, 꿀방울과 꿀과 젖으로 풍성한 입술과 레바논의 향기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술람미 여인에게 빠져있는지 상상이 갑니다. 이에 술람미 여인은 다음과 같이 솔로몬의 고백에 응답합니다.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은 매서운 찬바람을 의미합니다. 남풍은 그 반대로 따뜻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혹독한 겨울철 추위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외부적인 요인은 그 두 사람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솔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앞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에덴동산입니다.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자고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을 초대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솔라미 여인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오래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존재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그

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 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흠 없는 존재로 새롭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자세히 보고 더 오래 바라보므로 그의 허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날마다 목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온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굴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어주는 주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단지 허울만 좋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실존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2. 사랑하기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느끼고 있습니까?
3.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4.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사랑하듯,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5.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갖기 위해 오늘 어떤 실천으로 하루를 지어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소리

아가 5:1~16

1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 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
의 친구들이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 들어 많이 마시라 2 내가 잘지
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
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
다 하는구나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
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
이 없었노라 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가졌도다 8 예루살렘
딸들이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
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9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
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
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10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
어나구나 11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

나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물약의 즙이 똑똑 떨어지는구나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 들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5장 1절은 신랑 솔로몬의 말로써 4장 16절의 신부 솔람미 여인의 말의 화답입니다.

(1)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물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신랑 신부가 사랑의 시간을 가진 뒤, 결혼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피로연을 배품으로 결혼식이 마무리됩니다. 2절부터는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생활을 하면서 미묘한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전개됩니다. 결혼 첫날밤을 보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다리다 지친 신부와 늦게 찾아온 신랑의 미묘한 갈등(2~6절)

(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2절은 신랑이 바깥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평소와 달리 빨리 돌아오지 않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깜박 졸고 있었습니다. 잠을 잘지라도 마음은 신랑 생각뿐이었습니다. 때마침 문 밖에 신랑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방문을 두드리며 신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갖 애칭을 써가며 부르는 감미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며 자신을 부르는 신랑의 목소리였습니다. ‘누이’는 친근감을 강조하는 호칭이며, ‘비둘기’는 순결과 온유함, ‘완전한 자’는 무결점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애칭으로 보자면, ‘허니’, ‘자기’, ‘공주’ 등과 같은 느낌일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다양한 애칭으로 신부를 불러준다는 것만으로 신부의 마음은 설렙니다.

신부를 부르는 음성에 신부의 마음은 설레는데, 이제는 신랑이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신랑은 머리에 밤이슬이 젖기까지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는

잠에서 온전히 깨지 않아 문 여는 것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빛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부가 발을 씻고 침실에 누워 있었으니 옷을 챙겨 입고 문을 열어주러 문까지 가기가 좀 귀찮았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신랑이 열쇠나 번호를 눌러서 들어왔을 텐데, 아쉬운 장면입니다. 문틈사이로 신랑의 손이 보이자 신부는 마음이 쓰여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문까지 걸어가 문을 열어주려고 잠금장치인 문빛장에 손에 대자, 몰약의 즙이 신부의 손과 문빛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신랑이 문틈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문빛장을 움직여 문을 열려고 시도했을 때 신랑의 손에는 몰약 즙이 흥건히 적혀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몰약은 ‘감람나무과(Burseraceae)의 몰약수(Commiphora myrrha Engler, 沒藥樹)에서 얻은 고무수지’입니다. 몰약은 항염증, 진통 효과가 있으며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귀한 향료이기도 합니다. 신랑은 신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귀한 몰약 즙을 손에 묻히고 왔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묻히고 간 몰약 즙의 끈적끈적함을

느끼며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신부가 문을 열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할 때는 이미 신랑은 사라지고 보이질 않았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사라진 것을 알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집 주변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고 불러도 신랑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애절히 찾아 헤매는 신부(7~9절)

(7~8)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겹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부는 집 주변에서 신랑을 찾을 수 없자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밤중에 신랑을 찾다가 순찰자와 파수꾼들로부터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금 전 발을 씻고 침실에 누워있던 신부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합니다. 나의 신랑을 만나면 신부가 상사병이 걸렸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신부의 친구들이 대답합니다.

(9)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신부의 친구들도 신부의 미모를 인정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신랑이 다른 사람의 신랑보다 나은 점이 무엇이나 얼마나 너의 신랑이 대단하면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냐’ 라고 신부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신부가 신랑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10~16절)

(10~16)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11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12 눈은 사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13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 다리는 순금 반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신부 솔람미 여인이 신랑 솔로몬에 대하여 조목조목 자랑을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품 자랑이 아니라 신혼부부답게 신랑의 신체 각 부분을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신랑과 아주 친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표현입니다. 신랑을 깊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은유법으로 신랑 신체의 건장하고 멋진 모습을 자랑합니다. 신랑의 피부, 머리,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을 한 번 더 언급함으로 신랑과의 사랑의 시간을 회상합니다. 은유로 순금, 까마귀, 비둘기, 향기로운 꽃밭, 향기로운 풀언덕,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청옥을 입힌 상아,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백향목 등으로 신랑의 강인함과 부드러움, 강렬함과 인자함, 매혹과 달콤함, 힘과 아름다움, 안정감과 위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깊이 사랑하는 신부의 마음에서 나오는 멋지고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배우자의 사랑, 주님의 사랑

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신부가 신랑을 찾을 수 있을지, 신랑을 찾는다면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며 이 장이 끝납니다. 남녀가 사랑하려면 만남과 감정의 일치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과 살다보면 때론 5장처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랑싸움

이든, 가치관의 차이이든, 생활방식의 차이이든 갈등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돕는 배필이 장시간 부재중일 때 어떻습니까? 그때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왜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겠습니까? 부부는 '합하여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의 일부가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부부입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술람미 여인처럼 떠난 신랑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마음이 떠났다면 그 마음을 되찾기 위하여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자의 좋았던 점을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좋은 점들을 회상하면서 좋지 못했던 기억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앞 장에서 여러 차례 들었지만 남녀 간 사랑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노래이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성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음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이 옆에 계셔도 무감각하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았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은 술람미 여인을 찾아 문을 열려고 했던 신랑처럼 적극적으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매순간 우리 각자의 방문을 열려고 문틈사이에 손을 넣으셔서 문빗장을 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일어나기 귀찮아하여 때를 놓치고 있습니다. 문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위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듯이 귀를 막고 있는 비늘 역시 벗겨져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막고 있는 비늘이 벗겨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남자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시어 돕는 배필 여자를 남자의 신체 일부로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시고 그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두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창조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자녀간 사랑과 부모자녀간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찾아와 마음의 문을 열어 사랑해 주시고자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부부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자녀가 함께 지어져 가고 가족이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옵고, 이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함께 지어져 가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비늘이 주님의 말씀으로 벗겨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사랑하는 사람(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형제 등)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제대로 신경을 써 주지 못했거나 무례히 행함으로 관계가 소원해진 적은 없었습니까?
2. 만약에 그렇다면 관계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솔람미 여인은 외적인 미모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아1:5~6) 신부가 되기 전까지 남자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큰 매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솔람미 여인이 첫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솔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많은 왕비가 있었습니다.(아6:8)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았겠습니까?
4.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을 신부로 맞이했듯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나를 신부로 맞아 주셨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5. 솔람미 여인이 신랑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표현(아5:10~16)과 신랑이 신부에 대해 느끼는 사랑의 표현(아4:1~5)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표현은 보고 듣고 느꼈던 경험을 기초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시를 몇 줄 써 보십시오.

묵상한 날 :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아가 6:1~14

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5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6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7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8 왕비가 육십 명ियो 후궁이 팔십 명ियो 시녀가 무수하되 9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11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낳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리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솔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솔람미

여인들의 노래1~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부(1~3절)

아가는 남녀(솔로몬왕과 술람미 여인)가 서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과 신부인 교회(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은 두 연인이 서로를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3장에서 결혼을 하고, 4장에서는 신혼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또 상대를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는 말의 양이 다르고, 동일한 말을 내뱉어도 그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에 의견차가 있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5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개역개정판 성경이 번역이 잘 되었지만, 아쉬운 점 한 가지는, 산문과 운문을 구분이 되지 않도록 배열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읊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를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이 운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시가서도 산문으로 된 성경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아가'는 한편의 '오페라'와 같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하면, 노래와 연기를 하는 성악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케스트라가

있어 성악가가 노래할 때에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노래와 연주가 연합하여 작품을 만들어 냅니다. 고대 희랍비극이나 고전극에는 배우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극의 전반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표현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음악이나 조명 등이 담당합니다. 코러스가 연극의 전반을 설명하기도 했고, 극중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등 극의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아가에도 주인공인 솔로몬왕과 술람미 여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여인들’이라는 코러스가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노래입니다.

(1)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라고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술람미 여인이 실제로 미스코리아로 선발될 정도로 아름답다는 의미가 아니라, 솔로몬왕의 눈에 그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나면, 자기 연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예루살렘 여인의 질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답변의 노래가 이리합니다.

(2~3)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 떼를 먹이는도다

솔람미 여인은 남편 솔로몬왕이 ‘자기 동산’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산’을 4장에서는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는 여러 개의 동산(별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을 ‘자기 동산, 잠근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 자기만이 누리는 곳을 뜻합니다. 또한 이 동산은 솔람미 여인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신혼의 때의 티격태격함을 넘어서 사랑이 회복됨을 뜻합니다.

그래서 솔람미 여인은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속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것도 깰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나누면 니룰수록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반면에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을 향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암 3:2)”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족속들은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출 20:3)”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노래(4~9절)

4~9절은 앞의 신부의 노래(2~3절)에 화답하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마치 오페라에서 소프라노와 테너가 서로 번갈아 가며 사랑의 아리아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4)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솔로몬왕은 술람미 여인을 3가지로 묘사합니다.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다고 합니다. ‘디르사(tirsah)’는 도시 이름인데, 솔로몬왕이 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에, 남쪽의 수도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이었지만,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약 40여 년 동안에는 ‘디르사’가 수도이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며 수도를 아무 곳이나 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 적절한지를 고르

고 골라서 선정합니다. 디르사에 솔로몬왕의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정원만큼이나 신부 솔람미 여인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솔로몬왕이 솔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에 비유한 것은,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과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아름답고, 성전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는 ‘위엄 있음’을 뜻합니다. 솔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위가 있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는 만나면 품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품위는 잘생긴 것이나 예쁘게 생긴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솔로몬왕은 신부 솔람미 여인이 아름다움과 품위를 함께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왕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5~7)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네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5~7절은 4:1~3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신랑에게 신부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아름답다고 말

하는 것입니다. 2~30대의 젊은 커플도 아름답지만, 4~50대의 중년 커플도 멋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70대의 노년 커플도 품격이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남편의 의리, 아내의 의리를 잘 지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이 깊어지고, 품격이 커 집니다.

5절은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에 대한 예찬입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눈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또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눈은 외형기관이지만, 그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눈’이 인간의 전 인격을 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이 높다’는 것은 키가 크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안목이 높거나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염소 떼와 같다는 것은 윤기가 흐르고, 매혹적인 흑발이라는 것입니다.

6절은 신부의 치아에 대한 예찬입니다. 평소에 양이 지저분할지라도 목욕한 암양은 하얗습니다. 그리고 쌍태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부의 치아가 빠진 것이 없이 윗니와 아랫니가 가지런하게 나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7절은 신부의 뺨에 대한 예찬입니다. 뺨이 석류와 같다고 하는 것은 석류 속에는 붉은 색 알맹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부의 건강하고도 풍성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8~9)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느니라

솔로몬왕은 신부인 솔람미 여인이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 그리고 무수한 시녀들보다 아름답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왕에게 왕비가 700명이고, 첩(후궁)이 300명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왕은 이 아가서를 결혼초기에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왕은 신부를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들도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솔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입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왕비들은 이웃나라의 공주 출신들입니다. 그럼에서도 다른 왕비와 후궁들이 솔람미 여인을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솔로몬왕의 모든 마음이 그녀에게 가 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왕실 내명부 여인들은 모두 그녀의 수하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들의 노래2-예루살렘 여인들과 신부(10~13절)

또 솔람미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 아침 빛 같이 뚜렷하고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람미 여인의 모습을 4가지로 노래합니다. ‘아침 빛’, ‘달’, ‘해’, ‘깃발을 세운 군대’입니다. ‘아침 빛’은 붉게 떠오르는 태양 처럼, 황홀한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달’은 어둔 밤을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탁월한 아름다움을 뜻하며, ‘해’는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없는 것처럼 눈부신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깃발을 세운 군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만큼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남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솔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11-12)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손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솔람미 여인이 ‘호도 동산’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골짜기의 푸른 움이 돋았는지와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솔로몬왕이 솔람미여인에게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는지 가보자고 했고, 그 동산에 있는 석류나무에는 열매가 가득하다고 노래했었습니다. 즉 솔람미 여인이 이 동산으로 간 것은 꽃이나 열매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처음 교제했던 장소에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왕자들

이 타는 병거에 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만난 것을 춤을 추며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백옥 같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핑크빛 뺨, 하얀 치아를 가진 기품 있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세상에서 이 여인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왕궁의 모든 여인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내가 비록 검지만 아름답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시골 처녀이었습니다. 계달은 흑염소 털로 짠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여인은 농사를 지어서 피부가 까맣게 탔던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왕이 자신을 선택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은 보잘 것 없고, 계달의 장막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님

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데렐라가 왕자의 선택을 받는 것은 일방적인 은총이지만, 신데렐라가 왕자비와 왕비다운 여인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자신의 의무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안에서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 날이 되심으로, 하루만큼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새로워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왕과 솔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잘 압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믿음에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지도 압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 하시며, 우리를 예쁘게 봐 주시는 주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속적 가치관의 비늘을 버리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어제보다 하루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여 새로워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솔로몬왕은 솔람미 여인을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 보십시오.
2. 당신이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기록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3. 당신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든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이었습니까?
4.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할 날 :

사랑의 성숙

아가 7:1~13

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손이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2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머리는 갈멜 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네게 주리라 13 합환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다

2017년 한 인터넷 신문에 ‘어느 80대 노부부의 사랑이야기’에 대한 글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20살 동갑내기 두 젊은 남녀는 부부가 되었고, 어느새 60여 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척추장애2급, 하반신 마비 환자로 거동조차 잘 할 수 없는 할머니. 불편한 몸에도 할머니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집안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한 운동과 취미 생활인 색칠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 조금이나마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과 행여 자신이 치매에 걸려 할아버지가 더 힘들어질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할머니를 말없이 바라보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40대 초반 찾아온 할머니의 척추질환 수술을 위해 큰 돈을 팔아 수술비를 마련했고, 40여 년간 할머니의 손과 발이 되어 지고지순 옆을 지켜온 할아버지는 아직도 세상에서 자신의 아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씩스럽게 한마디 건네십니다. 그 모습에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해집니다.”

사랑은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랑을 지켜가는 이 노부부의 삶이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는 신랑 솔로몬왕과 신부 솔람미 여인의 사랑은 이 노부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연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의 신부 찬가(1~6절)

솔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6장 말미에 사람들은 신랑을 만난 솔람미 여인에게 기쁨의 표현으로 춤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7장이 시작됩니다. 1~10절까지는 이 요청에 응하여 춤을 추는 신부 솔람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신랑 솔로몬은 그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이전보다 더 농후하고 과감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욕망이 더해져 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사랑의 깊이가 더해 가고 있음 즉 사랑이 더 성숙되어져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의 눈은 그 여인의 발에서 시작해 머리로 이동해가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발과 다리의 아름다움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녀의 다리는 숙련공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과 같다고 감탄합니다.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를 언급하며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은 그 여인의 가슴과 목, 눈, 코를 언급하며 여인의 사랑스러움, 아름다움, 고귀함, 맑고 투명함, 조화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솔로몬의 시선은 여인의 머리와 머리털을 향해 있습니다. 머리를 갈멜산에 비유하고, 머리털을 자주 빛으로 묘사합니다. 갈멜산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자주색은 고귀함, 왕좌, 부를 상징합니다. 즉 그 여인이 솔로몬 본인에게 얼마나 고

귀한 존재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에서 머리까지 신체의 각 부분을 하나씩 클로즈업하며 아름다움을 그려갔다면, 6절은 그 여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 새번역성경)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이려합니다. 스바나 3:17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떠한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합니다. 이때 쓰이는 단어는 원어로 ‘케레브’인데, 이는 ‘심장’, ‘~깊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내면 깊숙이 좌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심장에 당신의 사랑을 이식시켜 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심장에서 고동치고 있는 주님의 심장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소리는 우리를 향해 고동치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비늘을 벗겨 낼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의 안경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주님이 거할 처소로 매일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솔로몬의 열망과 신부의 받아들임(10~13절)

신부 솔라미 여인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표현한 솔로몬은 이제 7~9절에서 그 여인과 실제적인 더 깊은 사랑 나누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13절에서 그 신부는 신랑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고 신랑의 사랑의 열망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허무함과 절망으로 걸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사랑의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미 거대하지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정도에 그치기를 원해 하지는 않으십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공감하고, 주님과 사랑에서 우리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요청과 열망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을 바르게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곳에 한눈팔지 않고, 우리의 심장을 울리는 주님의 사랑에 늘 반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그려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늘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잘 지어져 가는 하루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신랑 솔로몬은 신부 술람미여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 술람미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의 깊이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느끼게 합니까?
3.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열망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나를 향해 고동치는 주님의 사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4.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의 사랑에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묵상한 날 :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아가 8:1~13

1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
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
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3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4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
라 5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
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
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9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
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라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
라 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11 솔로몬이 비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2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3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14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공개적인 애정표현을 통한 사랑의 선언(1~7)

7장에 이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의 염원은 계속됩니다.

(1)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낭만적인 입맞춤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입맞춤은 가족 끼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보건대, 가족이라고 해도 부부끼리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을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술람미 여인은 남편 솔로몬이 차라리 자신의 형제였으면 하는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은 곧 솔로몬과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2~3)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2절의 “이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하그’는 성경 안에서 항상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누나의 역할을 맡아 주도적으로 그를 이끌어 자신의 어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석류즙으로 만든 향기로운 술을 따라주며, 왼팔과 오른팔로 자신을 꼭 껴안았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염원에 이어 경고성의 후렴으로 이어집니다.

(4)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 표현은 2:7과 3:5에도 나오는데, 적절한 때가 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몇 가지 이미지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6~7)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먼저는 도장 같다는 것입니다. 도장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원통형의 도장과 현재에는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밀랍 등을 놓고 눌러 찍는 압인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장은 지금과 같이 원통형의 도장보다는 압인 도장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도장은 소유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없다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과 같은 왕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항상 끈으로 목이나 팔에 매달거나 반지처럼 낄 수 있는 형태, 즉 주인에게 계속 붙어 있을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도장 같다는 솔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고, 무엇을 하든 함께 있을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이 찾아오면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의 사랑은 누구도 막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 때로는 질투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질투는 스올과 같이 잔인하고 불길처럼 활활

타오른다 말합니다. 그 불길의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불에 비유되는 질투,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향한 사랑의 엄청난 강도와 단호한 헌신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어서 솔람미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이제 물로 비교합니다. 물에는 다양한 특성이 있겠지만, '많은 물', '홍수'의 특성으로 비유합니다. 많은 물과 홍수는 강력한 불을 끌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물도 솔람미 여인의 타오르는 사랑을 끌 수 없었고, 아무리 큰 홍수도 그녀의 마음을 휩쓸어 버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을 많은 재물과 비교합니다. 그녀의 사랑은 솔로몬이 가진 온 가산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가산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심순애는 김종배의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바꾸었지만, 솔람미 여인은 그 다이아몬드의 수억 배에 이르는 솔로몬의 가산과도 사랑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지속적인 사랑(8~14)

솔로몬을 향한 솔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은 그를 향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1~12) 솔로몬이 바일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었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 구절이 가진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에는 솔로몬이 소유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리 사이의 대조가 그 요점으로 보입니다. 바알하몬,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은 그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자들로 하여금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 천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로 은 이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에 비하면 이백은 적습니다. 솔로몬이 얻은 이익에 비하면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주인인 솔로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술람미 여인도 자신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키는 자들에 의해 잘 지켜진 풍성한 포도원과 같은 그녀는 지금 아무에게도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자신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스스로에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을 임대해주고 이윤을 챙겼지만, 그녀는 자신을 솔로몬에게 이윤도 없이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겠

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향한 솔람미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솔람미 여인의 사랑이 그녀 혼자만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역시 그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애절하기까지 합니다.

(13~14)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솔람미 여인은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를 만나기 위해 궁을 벗어나 그곳을 방문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녀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도 이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그녀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를 본인이 독점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더 크게 외쳐 달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솔람미 여인은 외칩니다. 서둘러 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14, 새번역)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산은 술람미 여인이고 어린 사슴은 솔로몬을 가리킵니다. 술람미 여인의 외침은 그녀의 품 안에서 뛰노는 솔로몬을 연상 시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의 기쁨을 택하여 함께 하자는 연인의 격앙된 어조로 아가서가 마쳐졌습니다. 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이 과정을 담은 오늘 본문 속에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처음 만났던 시간에 대한 회고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만난 시기보다 더 앞선 시기, 술람미 여인이 어렸을 때 오빠들이 그녀를 보호주었던 것에 대한 회상이었습니다.

(8~9)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어린 시절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엄하고 강한 보호적인 관계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빠들은 그녀를 돌보며 그녀가 순결을 지키며 성장하는데에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는 그들의 고민에서 누이의 순결을 지키려는 오빠들의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가 순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또한 성벽으로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오빠들은 그 성벽 위에 더 높은 망대, 그것도 은 망대를 세워 그녀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녀는 문으로 지켰는데, 그들은 그 문 위에 백향

목 판자를 둘러 더 튼튼하게 지켰다고 말합니다. 오빠들은 자신을 튼튼히 지키려는 술람미 여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보호로 더욱 더 강하게 지키도록 지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키고 또 보호받으며 스스로를 준비하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게 됩니다.

(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와의 첫 만남의 회상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오빠들의 강력한 보호적인 지도에 토를 달지 않고, 겸허히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결국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곧 살롬을 얻은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살롬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온전함과 완전함, 심신이 모두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롬을 얻었다는 것은 그녀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슬로몬도 얻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노래 중의 노래, 아가에 담겨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러브스토리는 이 시대, 부부애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위해 디자인하신 결혼, 그 부부의 설계는 성벽과 문처럼, 아니 성벽 위에 망대 세우고 문 위에 판자를 덧댄으로써 지켰던 순결과 희생적이고 열정적이며, 평생에 걸친 애정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부부간의 숭고한 사랑에서 아가서는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사랑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불길같이 맹렬히 타오르는 사랑을 지켜 오십니다. 우리도 그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잘 지켜야 하고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걸어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순결입니다. 순결을 지킴으로 비로소 슬람미 여인은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결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곧 화평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 메이커입니다. 평화 애호가나 샬롬을 비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 샬롬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샬롬을 경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삶이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지어져 간 우리가 이제는 화평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고, 또 평화의 통로가 되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져 간 가정과 일터, 교회가 나아가 샬롬의 통로가 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지어져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순결, 그것이 화평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살롬을 경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평화를 경작하고, 더 나아가 살롬의 통로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을 돕는 질문

1.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그들 사랑만큼 나의 남편(아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2. 솔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사랑의 이미지가 무엇이었으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3. 솔람미 여인과 그의 오빠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애써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해 봅시다.
4.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비우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